

조선 시대 인간과 국어 생활

황문환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는 흔히 ‘언간(諺簡)’으로 불린다. 이는 당시의 한글이 ‘문자(文字)’, ‘진서(眞書)’ 등으로 지칭된 한문(漢文)과 대비되어 ‘언문(諺文)’으로 불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종 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로 우리 국어는 전면적인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실용 범위는 딱 한정되어 종래의 한문을 대신하기보다는 한문 서적의 언해(諺解)나 한자음(漢字音) 정리 등 한문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安秉禧 1985: 805-20, 남풍현 1996: 25-6).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당시의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정식 명칭보다 ‘언문(諺文)’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언문’으로 작성된 문서가 정당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은 데서 보듯이 ‘언문’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이 극히 제한되었다(安秉禧 1985: 807-9). 1894년 고종(高宗)이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법률과 칙령은 국문을 기본으로 하되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하거나 한다]’이라는 칙령(勅令)을 내리기까지 한글은 조선 시대 내내 ‘국문(國文)’의 공식성(公式性)을 인정받지 못한 채 ‘언문’의 지위에 머물렀던 것이다.

‘언문’의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던 현실은 바로 ‘언간’에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약은 무엇보다 언간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6세기 중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¹⁾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서간이 오간 때 문이지만,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과 상통한다. 여하튼 조선 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內簡)’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부녀자끼리 주고받는 편지”(『표준국어대사전』), “궁정(宮庭) 또는 여염(閭閻)에서 부녀(婦女)를 상대로 한 편지”(李秉岐 1948: 1)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초기 언간에 해당하는 16, 17세기의 것만 보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득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²⁾ 한문 서간이 사대부

-
- 1) 물론 남성 간에 언간이 실용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주종 간(主從間)에 오간 언간이나 외교상 기밀(機密)을 유지하기 위해 오간 언간이 바로 그러하다(金一根 1986/1988: 46-8). 특히 후자는 1796년 동지부사(冬至副使) 이형원(李亨元)이 의주부윤(義州府尹) 심진현(沈晉鉉)에게 보낸 언간이 전하는데, 여기서 보면 편지가 도중에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언문으로 썼음을 밝히고 편지를 받는 즉시 내용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조정에 전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이 언간의 내용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승정원(承政院)에 보고된 사실은 실록(實錄)의 같은 해 3월 6일자 기사에도 나온다.
- 2) 19세기부터 등장하는 『언간독(諺簡牘)』의 존재는 언간 사용이 이미 사대부 계층을 넘어서 일반화된 양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언간독』은 언간의 서식(書式)을 모은 것으로 사대부가의 부녀자 및 일반 평민들에게 편지 쓰기의 교과서 구실을 해 온 책이다. 또한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언간독』의 내용을 증보(增補)한 『증보언간독』이 방각본으로 널리 유통되는데 이 또한 언간 사용이 이전보다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 『증보언간독』에 증보된 내용 중에는 이른바 ‘배지(牌旨)’나 ‘고목(告目)’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서식이 주종간(主從間)에 오가는 언간의 서식인 점을 감안하면 언간 사용이 하층민에게까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 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白斗鉉 2001: 201-7).

2

인간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일상의 생활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다. 왕실 인간이라 해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니었다.(현대역은 필자)

(2) a. 숙경이는 너일 나가과 허여시니 그거시조차 므자 나가면 더욱 적막홀가 시브니 가지 〃 므음을 덩티 못홀가 시브다 언제 너희나 드러올고 눈이 감게 기다리고 잇노라 [숙경(淑敬)이는 내일 나가게 하였으니 그것조차 마저 나가면 더욱 적막할까 싶으니 가지가지 마음을 진정치 못할까 싶다. 언제 너희나 들어올까 눈이 감기도록 기다리고 있다.] <언간 54(17세기 중엽)³⁾: 어머니(仁宣王后)→딸(淑明公主)>

b. 가상이는 아적브터 썩 달라 호고 예인이 피여시니 급작되이 썩 호노라 드러쳐시니 이런 비변이 업서 웃노라 음식 가지 수를 손고바 헤며 내라 호고 보챌다 [가상이는 아침부터 떡 달라 하고 어리광이(?) 피었다. 급작스레 떡 하느라 떠들썩하였으니 이런 변(?)이 없어 웃는다. 음식 가지 수를 손꼽아 세며 내 놓으라 하고 보챌다.] <언간 77(1662년): 어머니(仁宣王后)→딸(淑明公主)>

(3) 너는 어이 이번의 아니 드러온다 어제 네 형은 출 노리개엿 거술 숙휘지이 만히 가지되 네 목은 업스니 너는 그 스이만 호야도 하 어떤 일이 만흐니 애들과 덕노라 네 목의 거스란 아모 악을 팔디라도 브되 다 츠자라 [너는

3) 이곳의 ‘언간’과 숫자는 金一根(1986/1988)에 소개된 언간과 그 번호를 가리킨다 (이하 마찬가지로). 예시된 ‘언간’ 가운데 수신자가 숙휘공주(淑徽公主)와 숙명공주(淑明公主)로 된 것은 각각 김일근·이종덕(2000-2001)과 김일근·이종덕(2001)에 현대어역과 어휘 주석이 배풀어져 있어 참고할 만하다.

어찌 이번에 아니 들어왔느냐? 어제 네 형[淑安公主]은 찰 노리개 같은 것을 숙휘(淑徽·숙명공주의 동생)까지 많이 가졌는데 네 몫은 없다. 너는 그 사이만 하여도 하도 애먼 일이 많으니 애달파 적는다. 네 몫의 것일랑 아무런 악을 쓸지라도 부디 다 찾아라.] <연간 41(17세기 중엽): 아버지(孝宗大王)→딸(淑明公主)>

(2)는 어머니인 인선왕후(仁宣王后)가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2녀)에게 보낸 연간이다. (a)에서는 막내딸(淑敬公主·6녀)마저 하가(下嫁)시켜 내보내는 적막한 심정과 함께 이미 혼인한 딸(淑明公主)을 더욱 그리워하는 모정(母情)을 담고 있다. ‘눈이 감게’(“눈이 감기도록”)라는 표현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 듯하다. (b)는 갑자기 떡을 달라며 보채는 손자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난데없는 소동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손자의 귀여운 어리광으로 바라보는 할머니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a), (b) 어느 경우나 보통 여염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의 애환(哀歡)을 전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일상성은 왕실에서 모녀간(母女間)의 연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은 아니다. (3)과 같이 아버지(孝宗大王)가 딸(淑明公主)에게 쓴 부녀간(父女間)의 연간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드러나기는 마찬가지이다. 아버지는 자매들이 노리개를 나눠 가질 때 그 자리에 딸 숙명공주가 없었던 점을 짐짓 애달파하는 척한다. 그리고는 다른 자매들에게 찾아가 ‘악을 쓸지라도 네 몫의 것일랑 부디 다 찾아라’고 부추기기까지 한다. 이 부분에 이르면 익살기마저 섞인, 그야말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부정(父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엄(至嚴)하다는 왕실에서 사정이 이러하였으므로 왕실 이하 계층에서 오간 연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실로 조선 시대의 연간은 왕에서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곡진한 감정을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산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절절한 애도(哀悼)의 표시로 관 속에 넣어 보내기도 하였

다. 사대부가의 관중서(棺中書)로서 아래와 같이 이른 시기(16세기 후반)의 것이 전한다.(현대역은 필자)

(4) a. (상략) 엇허여 내 모매 죄앙이 사히셔 병 둔 나는 사랏고 병 업던 그대는
 백년허로 홀 언약글 저벌고 엄홀히 일도애 어드러 가신고 이 말 니르간디
 는 텃디 무궁하고 우뉘 곱활홀 쫄툼미로쇠 줄할이 주겨 가 그디과 넥시
 나 혼가 둔너 이 언알 일오고 (하략) [어찌하여 내 몸에 재앙(災殃)이
 쌓여서 병을 지닌 나는 살았고 병이 없던 그대는 백년해로 할 언약을
 저버리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셨는가? 이 말 이르자니 천지
 (天地)가 무궁(無窮)하고 우주(宇宙)가 공활(空豁, 넓고 텅 빔)할 따름
 일세. 차라리 죽어 가서 그대와 님이나 함께(?) 다녀 이 언약을 이루
 고] <안민학언간(1576년): 남편(安敏學)→아내>⁴⁾

b. (상략) 자내 상해 날드려 님오더 들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흙피 죽자
 하시더니 엇디허야 나를 두고 자내 먼저 가시는 날허고 즈식허며 님 귀
 걸허야 엇디 허야 살라 허야 다 더디고 자내 먼저 가시는고 자내 날 향
 히 므으물 엇디 가지며 나는 자내 향히 므으물 엇디 가지던고 밍양 자
 내드려 내 님오더 혼디 누어서 이 보소 님도 우리ㄴ티 서르 예엿째 너
 겨 스랑허리 님도 우리 ㄴ튼가 허야 자내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를
 생각디 아녀 나를 브리고 먼저 가시는고 자내 여히고 아미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내흔디 가고져 하니 날 드러가소 자내 향히 므으물 츄싱
 니줄 주리 업스니 아미려 설운 뜨디 ㄴ이 업스니 이 내 안흔 어디다가
 두고 즈식 드리고 자내를 그려 살려뇨 허뇌이다 이 내 유무 보시고 내 꾸
 메 즈세 와 니르소 내 꾸메 이 보신 말 즈세 들고져 허야 이리 서 년뇌
 즈세 보시고 날드려 니르소 (하략) [자내 항상 내게 이르되, ‘들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내 먼저 가
 시는가? 나하고 자식하며 누가 분부하여 어찌 하여 살라 하고 다 던지
 고 자내 먼저 가시는가? 자네가 날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으며 나는
 자내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던가? 매양 자내에게 내 이르되, 함께 누

4) 판독문(사진 포함)과 자세한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具壽永(1979) 참조.

워서, ‘이 보소.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빠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남도 우리 같은가?’ 하고 자네에게 일렀는데, 어찌 그런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 자네 여의고 아무래도 내 살 힘이 없으니 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해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방법이 없으니, 아무래도 서러운 뜻이 그지없으니, 이 내 속은 어디다가 두고 자식 데리고 자네를 그리워하며 살겠는가 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 와 이르소. 내 꿈에 이 편지 보신 말 자세히 듣고자 하여 이리 써서 넣네. 자세히 보시고 내게 이르소.] <이응태묘출토언간(1586년): 아내→남편(李應台)>⁵⁾

(4)에서 (a)는 남편(安敏學)이 아내를 위해 넣어 준 관중서, (b)는 아내가 남편(李應台)을 위해 넣어 준 관중서이다. 둘 다 시신을 지키기라도 하듯 시신의 가슴 위를 덮고 있던 것인데,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난 뒤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하소연하듯 쓰고 있다. 특히 아내가 쓴 관중서는 생전의 다정했던 한때를 회상하며 꿈에라도 와 달라는 애절한 사연을 담아 400여 년을 격한 오늘날에도 읽는 이의 심금을 울려 준다. 언간이 그만큼 개인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내는 수단이었기에 이 같은 관중서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언간이 일상의 사적인 감정을 전하는 수단이었기에 언간에는 다른 어느 자료보다 당대의 일상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앞서 든 왕실 언간의 경우를 살펴보자.(현대역은 필자)

(5) a. 숙경이는 나가니 그 거술사 두고 쇼일도 호고 걱정도 호며 날을 디내더니
 니 므자 내여 보내니 경스로 나가건마는 섭 〃 호젓 굿브기를 어이 다
 덕으리 이리 섭 〃 고 굿브나 므움을 모디리 머저 웃고 내여 보내엿노라

5) 판독문(사진 포함)과 자세한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안귀남(1999) 참조.

[숙경(淑敬)이는 그 것을 두고 소일(消日)도 하고 걱정도 하며 날을 지냈는데, 마저 내어 보내니 경사(慶事)로 나가건마는 섭섭하고 호젓하고 심란하기를 어이 다 적으리? 이리 섭섭하고 심란하나 마음을 모질게 먹어 웃고 내어 보냈다.] <언간 85(1660년대): 어머니(仁宣王后)→딸(淑明公主)>

알픈 데는 조금도 낫는 이리 업서 흥가지라 하니 아마도 민망 〃 흥기 아므라타 업서 흥노라 [아픈 데는 조금도 낫는 일이 없어 마찬가지라 하니 아무래도 민망 민망하기 그지없어 한다.] <언간 112(1660년): 어머니(仁宣王后)→딸(淑明公主)>

전년 이 때에 모다셔 즐거이 다내던 이리 그 더더 네 일이 되어 일마다 아니 설운 이리 업스니 흥갓 톡 〃 흥 눈물뿐이로다 [작년 이 때에 모여서 즐거이 지내던 일이 그 사이에 옛날 일이 되어 일마다 아니 서러운 일이 없으니 단지 가슴 답답한 눈물뿐이로다.] <언간 87(1660년): 어머니(仁宣王后)→딸(淑明公主)>

- b. 병과 죽과는 되여야 도타 하니 흥 시죽 부비수치 알코 도화야 도흔디 더리 어렵듯하고 이시니 더욱 곱 〃 흥여 흥노라 [병과 죽은 되여야 좋다 하니, 한 시각 심하게 부대껴(?) 앓고 좋아져야 좋은데, 저리 어렵듯하고 있으니 더욱 갑갑하여 한다.] <언간 120(1669년): 어머니(仁宣王后)→딸(淑徽公主)>

우흐로 부모를 싱각하고 싱심도 무익흔 슬쑤지 말고 밥이나 힘써 먹고 병드러 근심 기티디 말아 [위로 부모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무익한, 슬퍼하여 몸 상하는 일(?) 하지 말고, 밥이나 힘써 먹고, 병들어 근심 끼치지 마라.] <언간48(17세기 중엽): 아버지(孝宗大王)→숙명공주(淑明公主)>

원상의 싱일의 오손 조각 모화 흥여 준 거시 머어서 이젓흥리 할미 하암이 그리 혹석저이 흥엿닷다 [원상의 생일에 옷은 조각을 모아 하여 준 것이 무엇이 볼만하리(?)? 할미의 향암(鄉閭, 어리석음)이 그리 볼품없이(?) 하였도다.] <언간 75(17세기 중엽): 어머니(仁宣王后)→딸(淑明公主)>

(5)에서 (a)의 ‘굿보다’, ‘아므라타 없다’, ‘톡톡하다’는 차례로 “허전하고 심란하다”, “뒤편이 이를 바가 없다, 그지없다”, “가슴이 메이고 답답하다” 정도의 의미로 편지 쓴 이의 주관적 심정을 표현하는 데 쓰인 어휘들이다. 이들 어휘는 왕실 언간을 비롯하여 당시(17세기)의 언간에 빈번히 등장하지만 다른 판본 자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언간이 개인의 곡진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합했던 까닭에 어휘 사용에 이 같은 차이가 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의 ‘부비숫다’, ‘슬루지’, ‘이젓하다’, ‘흑석젓다’ 등은 (a)만큼 출현 빈도가 높지 않으나 역시 다른 판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휘들이다. 종래의 고어 사전이 판본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탓에 이들 어휘는 대부분 고어 사전에도 누락되어 있다. 언간에는 이같이 고어 사전에 올라야 할 어휘가 술하게 등장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실제 어휘라는 점에서 언간은 실로 ‘일상 어휘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간의 어휘상 특징은 언간에 반영된 국어가 ‘언해(諺解)’의 성격과 무관한 데 원인이 있다. 현전하는 판본 자료는 대부분 다른 언어를 국어로 번역한 ‘언해’의 성격을 지니는데 언해 자료에서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주로 한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가령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에서 ‘그 어미와 밋 식어미로 더브러’ (與其母及姑) <烈8:7<, ‘밋 밤 들매 7마니 나가’ (及夜間潛出) <烈4:41<와 같은 언해문을 보면 원문이 간섭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에는 국어 질서에 필요 없는 ‘밋’이 언해문에 더 들어가고 후자에는 ‘밤 들매 미처’와 비교할 때 언해문이 부자연스런 어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한문 원문의 ‘及’을 일일이 ‘밋’(←밋)으로 대응시키고 원문의 순서에 맞춰 직역(直譯)한 결과로밖에 달리 설명되기 어렵다. 그러나 언간에는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언해’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순이나 어휘 선택은 자연스러운 국어 질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언간의 문체가 국어 산문 문체의 형성에 기여했다(李秉岐 1948)는 주장도 언간의 언어 성격과 함께 언간이 한글(언문)을 해독하는 모든 계층에서 폭넓게 실용되었음을 감안하면 조금도 과장이 아닌 셈이다.

언간에 반영된 국어는 또한 특정 칭자를 상대로 대화 상황을 전제한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口語的) 성격이 강하여 언간에서는 구어적 표현이 비교적 일찍부터 등장하거나 방언적 표현이 쉽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현대역은 필자)

- (6) a. 자내 여히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내흔디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자내 향히 므으믈 츄싱 니줄 주리 업스니 아므려 설운 뿌디 그 이 업스니 [자내 여이고 아무래도 내 살 힘이 없으니 쉬 자내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내 향해 마음을 이승에서 잇을 방법이 없으니, 아무래도 서러운 뜻이 그지없으니] <이응태묘출토언간(1586년): 아내→남편(李應台)>
- b. 마님 기체후 일히 향 만안하옵신지 벨 복모 구〃 무님하성니으며 (중략) 비지하신 말심은 쇼인오 마음에도 함당하옵고 (중략) 안의 가 단여온 후은 전인을 허옵던지 쇼이니 가서 문안하옵고 자셔한 말심을 살불년지 하촉 허옵시기를 바리옵네다 [마님 기체후(氣體候) 일향(一向) 만안(萬安)하옵신지 병(竝, 아울러) 복모(伏慕) 구구 무임하성(無任下誠?)이오며 (중략) 안의(安義-지명) 가 다녀온 후에는 전인(傳人)을 하옵든지 쇼인이 가서 문안하옵고 자셔한 말심을 사릴 것인지 하촉(下囑, 분부를 내림) 하옵시기를 바라옵네다.] <언간 補35(1894년): 하천인(下賤人)→수령(趙秉吉)>

(6)에서 (a)는 앞서 소개한 관중서의 일부를 다시 가져온 것이다. 이곳의 밑줄 친 형식들은 판본 자료의 용례에 비해 시기가 앞서는 것들이다. 이인칭 대명사로 쓰인 ‘자내’(현대어 ‘자네’의 선대형)는 『첩해신어(捷解新語)』(1626 원고/1676간행)에서, ‘혀여/혀야가 ‘히’로 축약되는 현상은 근대국어 후반에나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언간에서는 이미 16세기 후반에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자내흔디’의 ‘흔디’가 현대어 ‘한테’의 소급형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구어적 표현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는 조병

길(趙秉吉)이 영남 지방(嶺南地方) 수령(守令)으로 재임하던 중 하천인(下賤人)으로부터 받은 언간(이른바 ‘告目’의 일종)의 일부이다. 예의 밑줄 친 형식들은 당시 중앙어의 일반적인 어형 ‘일향(一向)’, ‘병(竝)’, ‘말슴’, ‘술올런지’ 등과 비교할 때 당시의 방언(경상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어는 물론 보수성이 강한 한자어에까지 방언형이 등장하는 데서 언간의 구어적 성격을 재확인할 수 있다.

언간에는 이 밖에 언간 특유의 표현 양식이 존재하기도 한다. 아래와 같이 ‘ㄴ’ (재점)을 이용한 반복 표현이나 다른 자료에서 보기 어려운 생략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현대역은 필자)

- (7) a. 미양 속머리 알팍고 가슴 답고 알팍고 [매양 속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아프고] <순천김씨묘출토언간⁶⁾ 28: 어머니→딸>
- b. 아므려나 므스물 구디 ㄴ 머거라 [아무려나 마음을 굳게 굳게 먹어라]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68: 어머니→딸>
 모든 즈식드리 다 무스히 이시니 내 유보기로다 깃게라 ㄴ (중략) 울홀 견디여 너히나 가 보고자 ㄴ 버라느니 그 붓니로다 [모인 자식들이 다 무사히 있으니 내 유복(有福)이로다. 기쁘구나 기쁘구나. 올해를 견디어 너히나 가서 보고자 보고자. 바라는 것이 그뿐이로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2: 어머니→딸>
- (8) a. 주글 나를 기다리노라 뵈 이만 흐노라 [죽을 날을 기다린다. 바빠 이만 한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 58: 어머니→딸>
 니일면 볼 거시니 짚 덕노라 [내일이면 볼 것이니 잠깐 적는다.] <언간 50(17세기 중엽): 아버지(孝宗)→딸(淑徽公主)>
 스연 첩 ㄴ 흐오나 보시기 지리 못 히읍느이다 [사연 첩첩하오나 보시기 지리할 듯하여 못 하옵니다.] <언간 補34(1894년): 형수→시동생(趙秉吉)>

6) 판독문과 자세한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趙恒範(1998) 참조.

- 듀야 편티 못 민망호야 너기노라 [주야(晝夜) 편치 못하니 민망하게 여긴다.] <언간 補24(1660년대): 어머니→아들(朴長遠)>
- b. 아므레나 (중략) 기후 평안호^을 다시곰 바라옵노이다 [아무려나 기후 평안하옵시기를 다시금 바라옵니다.] <진주하씨묘출토언간⁷⁾ 84: 딸→어머니>
- 완〃이 호여 못호을 거시니 금월이를 말고 향월이를 보내^을 약 머길 줄이나 즈세 니르라 호읍쇼셔 [천천히 하여 못할 것이니 금월이를 말고 향월이를 보내옵소서. 약 먹일 방법이나 자세히 이르라 하옵소서.] <진주하씨묘출토언간 162: 아들→어머니>
- b'. 거셔는 엇지 호시^을 세간은 누가 잡고 거기 모양 등을 보시니 엇더호^을 실노 넘너 노히지 아니호으며 춘복 경각의 문포 두엇 필을 어더스오니 엇지 호야 입스오면 죠홀고 게셔는 업고 도라 의논홀 길 업스오니 엇지면 죠홀지 답〃호 일 만스오니 민망호^을 즈시 기별호^을 총〃이만 덕^을 [당신은 어떻게 하셨소? 세간은 누가 잡고 그곳의 사정 등을 보시니 어떠한가요? 실로 염려 놓이지 아니하며, 춘복(春服, 봄옷) 경각(?)에 문포(紋布, 무늬 있는 베) 두어 필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여 입으면 좋을지, 당신은 없고 돌아보고(?) 의논할 길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답답한 일 많으니 민망하오. 자세히 기별(寄別)하오. 총총(忽忽)하여 이만 적으오.] <언간 秋史 第2信(1818년): 남편(金正喜)→아내>

(7)은 ‘순천김씨묘출토언간’(16세기 중후반)에서 어머니(信川 姜氏)가 딸(順天 金氏)에게 쓴 편지 가운데 재점(再點)이 사용된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본래 재점은 (a)와 같이 같은 글자가 반복될 때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기 위하여 뒷 글자를 대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 글자가 아니라 (b)와 같이 단어(‘구디’)나 어절(‘깃게라’, ‘보고쟈’) 전체를 반복하는 데도 재점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러한 재점은 대부분 주관적 심정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인간에 특유한 일종의 강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판독문과 자세한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백두현(1997) 및 黃文煥(2002) 참조.

(8)은 인간에 등장하는 생략 표현을 예시한 것이다. (a)에서 ‘뱃’은 ‘뱃바’, ‘잡’은 ‘잡싼’, ‘지리’는 ‘지리홀 듯호와’, ‘뭇’은 ‘뭇호니’ 정도에서 일부 형태가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생략은 인간 이외에서는 쉬 보기 어려워 일반 언어 질서에 따른 생략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간의 생략 표현 가운데는 일반 언어 질서에 편입된 경우도 발견된다. (b), (b')의 ‘-습’이 그러한 예로, 이 ‘-습’은 처음에는 (b)와 같이 윗사람에게 보내는 ‘호쇼셔’체 편지에서 간헐적으로 사용되던 생략 표현이었으나, 19세기에 이르면 (b')에서 보듯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하는 특징적인 종결형으로 정착하게 된다(黃文煥 1999: 119-23). 오늘날 ‘별지를 참고하시압’(『표준국어대사전』)에 보이는 ‘-시압’의 ‘압’은 바로 이러한 종결형 ‘-습’이 화석화된 존재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조선 시대에 인간은 일상의 사적인 감정을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였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용된 까닭에 인간은 우리 국어를 지키고 가꾸어 온 귀중한 토양이 되었다. 인간은 자료 성격상 언해의 성격을 지니지 않아 당시의 자연스러운 국어 질서에 따르고 고유의 일상 어휘도 풍부하게 보여 주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특징은 앞으로 언해 위주의 판본 자료를 보완하여 어휘나 문체를 포함한 국어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미처 소개하지 못했지만 인간의 사연 속에는 당시의 실생활이 그대로 녹아 있어 생활사, 민속사, 교육사 등 여러 분야에서 살아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인간 자료가 적극 발굴, 소개되는 한편 이에 따른 학제간(學際間)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논 저

- 具壽永(1979). 「安敏學의 哀悼文攷」. 『百濟研究』 10집. 忠南大 百濟研究所.
- 金一根(1986/1988). 『增訂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일근·이종덕(2000-2001). 「17세기의 궁중 인간 - 淑徽宸翰帖 ①-④」.
『문헌과해석』 11-14호. 문헌과해석사.
- 김일근·이종덕(2001). 「숙명공주의 한글 편지첩 ①-③」. 『문헌과해석』 15-17호.
문헌과해석사.
- 남풍현(1996). 「언어와 문자」. 『조선 시대 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역사비평사.
- 백두현(1997). 「晉州 河氏墓 出土 <玄風 郭氏 諺簡> 判讀文」. 『어문론총』 31.
경북어문학회.
- 白斗鉉(2001). 「조선 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震檀學報』 92.
- 안귀남(1999). 「固城李氏 李應台 墓 出土 편지」. 『문헌과해석』 6호. 문헌과해석사.
- 安秉禧(1985). 「訓民正音 使用에 관한 歷史的 研究 -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東方學誌』 46·47·48. 延世大 國學研究院.
- 李秉岐 編註(1948). 『近朝內簡選』. 國際文化館.
- 趙恒範(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黃文煥(1999). 「근대국어 문헌 자료의 ‘흐읍’류 종결형에 대하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 黃文煥(2002). 『16, 17世紀 諺簡의 相對敬語法』. 國語學叢書 35. 太學社.